

3)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

신라통일기에 이르러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무역관계에서도 조공을 통한 공무역(公貿易)만으로는 물품수요의 증가에 부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민간의 사사로운 교역, 즉 사무역(私貿易)이 왕성해졌다. 이 사무역은 주로 해안지역의 지방세력에 의하여 해상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상무역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신라 하대에 이르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신라의 해상무역은 주로 당·일본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때(828~841)가 신라의 해상무역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이와 같은 해상무역의 발전과 함께 해안지역에서 해상무역활동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부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해상세력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물론 장보고였다. 장보고는 앞에서 군진세력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는 군진세력보다는 해상세력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해상세력 출신의 호족 중에서 그 대표적인 존재는 송악(松嶽)의 왕건 가문이다. 왕건 가문은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호족으로 대두하였다. 다음으로 정주의 유천궁(柳天弓)을 들 수 있다. 유천궁의 정주 유씨는 해상세력에서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이외에도, 나주(羅州)·영암(靈巖)·압해(壓海)·혜성(檣城)·강주(康州)·울산(蔚山) 등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근거지에는 해상세력이 부를 축적하여 호족으로 등장하였다. 즉, 나주의 나주 오씨(吳氏), 영암의 영암 최씨(崔氏), 압해(현 신안군)의 능창(能昌), 혜성(현 충남 면천)의 박술희(朴述熙)와 복지겸(卜智謙), 강주(현 진주)의 왕봉규(王逢規), 울산의 박윤웅(朴允雄) 등이다.